

엘리베이트 연설 - 성소 홍보를 위한 현명한 단어 선택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긴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답변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네번째 단어에서 엉뚱한 곳으로 요점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나요? 어떤 주제는 우리의 관심을 끌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놓친다. 무엇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하는가?

이야기들은 보통 청중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쓰셨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분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으며 요점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실 수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물론 말보다 행동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 필요하며 그래서 우리는 단어들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야기를 잘 하시나요? 물론 목적은 청중을 잠자게 하는 것보다 사로잡는 데에 있죠.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법은 "엘리베이트 연설"입니다. 엘리베이트가 있는 건물에서 엘리베이트를 타고 목적지 층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보통 30 초 내지 1 분에 그 연설을 끝마치는 것 입니다 (고층 건물에서 살거나 일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당신이 재속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식의 흐름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포착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당신만의 독특한 엘리베이트 연설을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재속회의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구호를 빌려서 당신의 개인적 이야기를 말하는 것 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재속회로 이끌으셨는지, 다른 재속회원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기하면서 허끝에서 맴돌 수 있게 연습한다. 요점은 장황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어 선택에 있다.

2016 년 봄에 실린 성소에 관한 기사에는 당신만의 엘리베이트연설/ 경험담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질문들이 들어있다. 미주리 세인트 루이스 퀸키니엘 총회, 플로리다 Winter Park 의 년례 총회에서 60 여명 남짓하는 회원들이 그들의 경험담을 비디오 로 찍을 수 있게 허락 하였다. 그들의 경험담은 재속회 You Tube channel : <https://www.youtube.com/user/SecularFranciscans> 에서 볼수있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미국에는 12,000 이 넘는 재속회원들이 있는데, 경험담 을 아직도 나누지 않은 11,940 명의 회원이 남아있다. 당신의 경험담을 위의 사이트에 게시 하게 보내주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각 단위 형제회에서 할수있는 좋은 활동이 될 수있다.

이 기사를 쓸 때, 나도 게을렀다 (나의 경험담은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경험담을 이 기사가 출판되기전에 사이트에 올릴계획이다. 제가 저의 계획을 완수했는지를 you tube channel 에서 확인하여 주기를 권한다.

당신의 경험담을 저에게 보내지 않더라도, 당신의 친가족이나 재속회가족 과 함께 연습하며, 성당 신자들에게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가는지 저에게 OFSVocationscommittee@gmail.com 주소로 알려주십시오.

그 와중에도 성소를 위한 기도를 계속 바칩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사람들에게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평화를 빕니다.

Jane DeRose Bauman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성소를 위한 국가형제회가 마련한 기도

오~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동정의 주님, 관대하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사부 성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려고 하는 저희들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다른 이들이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으로 불림을 받게 해 주시고, 저희 모두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